일주문



후원모금 ARS전화 개설

종범 승가원 이사장 스님은 15일 소쩍새 마을 등의 복지시설 후원 모금을 위한 ARS 전화(700-1525)를 개설한다.



순직경찰관 위령제

성인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스님은 16일 오전 11시 경승법당에서 순직경찰관 추모 위령제를 봉행한다.



21일 사찰김치 특강

선재 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은 21일 오후 2시 연구원 강의실에서 '사찰김치 특강'을 마련한다. (02)924-8753



대승사 창건 1돌 법회

리선행 횡성 대승사 회주는 11일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승사 창건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승정 경산 스님 입적

열반송 남겨 … 사리 37과 수습



태고종 승정 경산 대종사가 2일 주석처인 천안 천왕사에서 법랍 73세, 세수 85세로 입적했다. 스님은 1916년생으로 28년 용주사에서 출가, 성덕사 천왕사 등을 창건하고 태고종 충남교구 종회의장, 충남교구종무원장 등을 역임, 지난 99년 승정에 추대됐다. 스님은 입적하기 전 '萬有諸法이(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從緣起하니(인연따라 생기니) 成住壞空은 一眞相(하나의 참다운 모습)이다. 不隨生滅하나(나고 없어지는 것을 따르지 않는) 唯一物하여(물건 하나 있으니), 以此作伴으로(이것을 벗 삼아서) 還本鄕하노라(본향으로 돌아가노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5일 천안 천왕사에서 태고종 승정원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비후 사리 37과가 수습됐다.

불교인권상 박정숙·김선분 씨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 스님)는 제7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박정숙 씨(85 · 여 ·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 사진 위)와 김선분 씨(77 · 여 ·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를 선정, 오는 21일 오후 5시 조계종 길상사 법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김재경 기자

"누명 깨끗이 벗을때까지 뒷바라지"

김태복 장군 후원회장 일면 스님



"언론에서 김태복 소장의 억울함을 처음 접하고 나서 도울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 소장의 명예회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불교계 전체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 소장이 완전하게 누명을 벗을때 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할 것입니다."

8일 발족된 김태복 장군 명예회복을 위한 후원회장으로 추대된 일면 스님(봉선사 주지)의 취임 인사다. 일면 스님은 봉선사를 비롯해 강남 봉은사, 강화 선원사 등에서 후원법회를 시작으로 점차 후원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5교구내에 있는 74개의 말사에도 공문을 보내 후원회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일반 불자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후원회 팜플릿을 만들어 전국 사찰에 배포할 생각입니다. 이와함께 종단의 중진 스님들에게도 적극 협조를 얻어 불교계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일면 스님은 김태복 소장이 현재 연이은 공판으로 경제적 · 정신적으로 많이 어렵다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건실한 재정위해 발벗고 나서야죠"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새회장 운광 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제10대 회장에 선출 돼 10일 취임식을 가진 운광 스님(분당 원적정사 주지)은 레크리에이션 포교의 길을 새롭게 확장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발족된 지 16년이 된 레크리에이션 포교회가 아직 확고하게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가 포교에 얼마나 무관심 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포교의 질적 변화와 조직의 정비 등이 우리 협회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만 포교현장의 의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운광스님이 레크리에이션 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0년 전. 그동안 스님은 협회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 왔다. 회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것도 스님의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우리 협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지도교사연수와 지도자과정 교육 등을 체계 있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앞에서 일 하신 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각계의 인연처에 협조를 구하면서 미력한 저의 원력을 보태고자 합니다."

임연태 기자

"부처님같이 되려면 참나 찾기 주력해야"

현각 스님 영남대서 강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다. 지난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사건은 문명간의 투쟁으로 볼 수 있는 종교문제이다." 〈만행-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 〈선의 나침반〉 등 베스트셀러를 통해 널리 알려진 현각 스님(영주 현정사 주지)이 6일 영남대 인문관 강당에서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강연에 나섰다.

현각 스님은 최근 미국 테러 대참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 등을 염두에 둔 듯 작금의 상황을 "그 옛날부터 끝나지 않은 종교전쟁"으로 규정했다.

현각스님은 서울 지하철에서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오직 믿으라'고 마구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이 자신을 보더니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따지기에,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대꾸해 줬다는 예화를 들고는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적 우월주의가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남대서 강연중인 현각 스님.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멈춘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사탕과 같은 것을 바란다. 사람들이 진리보다 감정, 느낌에 좌우된다"고 안타까워한 스님은 "부처님과 예수님과 가깝게 되고 싶은 나(我)를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며 결국 '참 나'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사형제 폐지하라"

진관 스님 국회앞 1인 시위

조계종 사형제도 폐지위원장 진관스님은 6일 오전 10시 안국동 길상사에서 출발,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평화행진을 벌였다. 진관스님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시간 가량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사형은 형벌이 아니라 또하나의 살인'이란 홍보판을 목에 걸고 사형제 폐지와 생명존중 사회 건설을 발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진솔한 대화 유도 따뜻한 공간 만들터"

하이텔 불교동호회 55세 시샵 유보현화 보살



"온라인에는 생각보다 많은 경험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동호회 활동은 단기간에 사람을 성숙시켜 줍니다."

95년부터 하이텔불교동호회에 발을 들여 놓아 4일자로 열두 번째 대표 시샵이 되기까지 유보현화 보살은 많은 것을 경험했다. 유보현화 보살은 올해 55세의 주부.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경력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얼마나 진솔한 마음을 드러내고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내년이면 하이텔불교동회가 10주년을 맞습니다. 6월 23일 기념일에는 성대한 잔치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2월에 있는 2백번째를 맞는 사이버 선법회도 중요한 행사죠. 무엇보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오관게 독송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자들의 의식과 신행생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아기자기 한 일부터 굵직한 일까지 적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유보현화 보살은 즐겁다.

임연태 기자



제6회 명원 차문화대상 시상식

명원문화재단이 주최한 제6회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이 6일 서울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 차문화 대상 학술상은 백운스님(부산 미륵사 주지)이 받았으며, 이귀례씨(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가 교육상을, 이연숙씨(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광주 운천사 대웅전 낙성법회

광주 운천사(주지 금명)는 5일 착공 1년 4개월만에 대웅전 낙성 및 탱화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선암사 주지 지허, 무각사 주지 광민, 용화정사 주지 혜광, 법륜사 주지 월인, 만덕사 주지 시각스님과 정동채 국회의원, 이정일 광주 서구청장, 이상진 광주불교방송 사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 고객부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 해지 방법

①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은행	결제 조건	이체 희망일
농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단, 우체국 수협은 제외)	예금 잔액이 구독료 보다 적을 경우, 통장에 납이 있는 만큼만 납부됩니다	매월 5, 15, 25일 중 선택

②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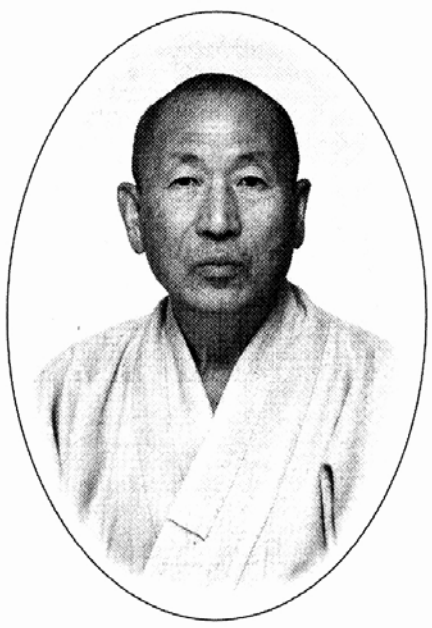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월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奉 보덕선원 밀운대선사 조실 취임 대법회 祝

밀운 큰스님을 모시고 동안거결제에 들어갑니다



밀운대선사

일 시 : 불기 2545년 (2001년)
11월 15일 (음력 10월 1일) 10시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24-1호
삼각산 보덕선원 대법당

문의처 : 보덕선원 02-914-4235

■ 교통안내
- ▫ 지 하 철 : 4호선 성신여대 입구 하차 → 일반버스 (하단) 탑승 종점 하차
- ▫ 일반버스 : 1, 1-1, 3, 5, 5-1, 16, 710 종점 하차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대 각 회
삼각산 보덕선원 선원장 오본 합장

찾아 오시는 길

